

yana

YANA YEAR BOOK



YANA Ministry is
non-profit organization designed
to bring hope and future to orphans
and children in poverty.

2018
—
vol.1



Thank You For Your Support!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YANA의 사역들은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마다 보내 주시는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 YANA의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고
또한 어우러짐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YANA를 후원해 주신 분들 (2017년 1~11월까지의 후원자들로 순서는 후원 액수와 무관합니다.)

General 도네이션

강애숙 구진회/구윤경 권병택 김문수/김앤 김배연 김선애 김성권/김희정 김영수/유영은
김현숙 박필년 손태영/손안나 안숙영 엄우정/김세기 우명주 유창열 이소정 이영선 이영순
이종우 이주영 임학재 조도영 차병조/Jenny Shim 참된교회 참빛교회 늘푸른모임
ADIO Corrective Chiropractic Andrew Lee AONE C&M Inc. Christopher Kim MD
Daniela J Lee David Park Dewel Xpress LLC Eoin Duane GLO Solution LLC Hauhn
International Inc(김상열) Hoyeon Hwang Hoyeon Hwang Inseob Lee Isaac Kim
JC Distributor LLC Jane Chung JC Global Inc. Jessica Park JHN Enterprise LLC
Joy Internal Medicine June Choi Nicolas Goode Q Academy Suhyun Kim Young Lee

BFF(Become A Family Forever) 도네이션

강문식/강은심 강애숙 강종원/김은경 김 승/김영숙 김기선 김문수/Ann Kim 김범석/이영림
김병찬/박단비 김선애 김수현/권유정 김중환/한지은 김주현/성보승 김지현 김현걸/김자연
김현숙 남남주 문미경 박민우/명윤희 박찬두/이은정 박천일/양혜원 안숙자 위명심 유재웅/
탁현영 이 승/제인영 이용민/박지은 이용우/김윤희 이인섭/황수연 이종범 이주환/최리나
임정수/강희 정미란 정희상/박희재 최병철/조에스터 최승순/최미희 최효일/정애란 한형주/
한유진 현광진/김금희 황의열/안희옥 Daniel Chung/Jiyeon Lee Grace Park Hoyeon Hwang
Hyung Bae John Huh/Hannah Huh John Kim/Suji Kim Ruby Kim John lee/Jessica Lee
Lisa Choi Mark Huh Sang Lee/Young Kim

*이 외 무명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VOL 1

발행인 PUBLISHER 황 주
편집장 EDITOR IN CHIEF 양혜원

편집위원 EDITOR 이용민, 한근주, 노윤주, Grace Park
광고디자인 AD DESIGN 노윤주
사진 PHOTO Jay Kim

WRITERS & CONTRIBUTORS
황 주, 한근주, 양혜원, 이종오, Timothy Yi, 김중환, 정신웅, 백한나, 박기준, 신순규, 박설미

편집·디자인·인쇄 EDITING LAYOUT PRINTING


PUBLISHED BY YANA

www.yanaminsty.org
yanaministry@gmail.com
201.530.0053

SPONSORED BY TRUE LIGHT CHURCH

www.truelight.org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201.530.0053

yana

2018 VOL.1

contents

후원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ANA는 YANA Ministry 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입니다.

- 6 YANA Who we are
- 8 BOARD MESSAGE
꿈과 꿈, 우리의 마음에서 아이들의 마음으로 / 신순규
- 12 BOARD MESSAGE
'야나'라는 이유 / 황주
- 14 YANA FAMILY
- 16 FLYING HAPPINESS
미국으로 날아온 행복 / 이종오
- 20 동명에서 온 편지
YANA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박설미
- 22 YANA PROJECT
- 24 SMT MISSION REPORT
THE THREE REASONS / Timothy Yi
- 25 SMT MISSION REPORT
작은 행복의 시작, MINI FLYING HAPPINESS / 김중환
- 26 SMT MISSION REPORT
도미니카 선교활동을 다녀와서 / 정신웅, 백한나, 박기준
- 28 YSAP
아름다운 그리스도 가정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 신순규
- 32 FAMILY SPONSORSHIP
동명아동 복지센터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YANA에서 따스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온라인 도네이션

- a. YANA Ministry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www.yanaminsty.org)
- b. 우측 상단부에 있는 '도네이션' 박스를 누른 후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수표 혹은 현금 후원

개인수표 혹은 현금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payable to: YANA Ministry Inc.)

YANA Ministry Inc.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Online Donation

- a. Visit www.yanaminsty.org
- b. Click on Donation and simply fill out the information

Check or Cash Donation

Send Check/cash to
(payable to: YANA Ministry Inc.)

YANA Ministry Inc.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YANA, WHO WE ARE



WHO WE ARE

Yana Ministry is a Christian humanitar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serve orphans and children in poverty to break the cycle of poverty and broken family.

WHO WE SERVE

We serve in Korea, serving children who either live in an orphanage or children's home.

WHAT WE DO

We believe every child should be raised and/or live in a healthy family setting. We want to provide a lifelong relationship to every child/student we encounter so they may taste the goodness of a healthy family and pursue to create their own healthy family.

WHY WE SERVE

We are inspired by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who served and died for the poor, oppressed, and marginalized people. We believe the best way to serve the poor is to follow the footstep of Jesus, by becoming their family.

We believe every child deserved a healthy family. We can be their healthy family in a various way.

우리는?

Yana 사역은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섬김으로 아이들이 가난과 깨어진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섬김의 대상

우리는 한국에 있는 보육원이나 아동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가족환경에서 자라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속될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이 건강한 가족이 무엇인지 맛보고, 자신들의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섬김의 이유

우리는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YOU ARE NOT ALONE.”

-YANA MINISTRY-



🌐 www.yanaministry.org
✉ yanaministry@gmail.com
☎ 201.602.6311



꿈과 꿈, 우리의 마음에서 아이들의 마음으로

한 동안 아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살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몇몇 마음 속에 심어주신 꿈이었습니다.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아이들의 스토리와 그들이 시설을 떠난 후 접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앓이를 하게 된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더불어 소망과 계획을 싣게 해주셨습니다. 2008년 여름, 한 단기선교팀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로 동명 아동 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면서 아나의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매년 단기 선교 프로젝트가 계속되었고, 플라이 해피니스^{Flying Happiness}가 2011년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조이^{Project Joy}가 2013년에, 야나 유학 프로그램이 2014년에, 또 야나 패밀리 후원프로그램이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지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한 꿈의 실천이었습니다.

첫 플라이 해피니스를 계획하면서 저와 황 주 목사님이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납니다. 듣기에도 불편한 '고아원', 또는 '보육원'이라 불리는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을 미국으로 초대해서 삶의 소중한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자는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해주자는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화목한 가족들과 하루 이틀씩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꾸기 시작해보자는 목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세상, 가능성이 풍부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에도 풍부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자는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해피니스 일정에 우리는 프린스턴 대학교 견학도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대학교를 구경한 동명친구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프린스턴과 같은 일류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기들을 '왜 그런 곳에 데려갔느냐'는 피드백에는 불만과 불평 같은 것이 깃들여 있는 듯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감안해서 우리는 명문 대학교 방문을 미래 플라이 해피니스 일정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가 그 때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 때 당시 대입을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일류대학 견학 따위가 자기들에겐 의미가 없단 말을 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미래에는 한정된 가능성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고, 저는 저 답지 못하게 그 말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만일, 6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플라이 해피니스 1기로 온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만나게 된 모든 야나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해주었겠지요.

우리를 꼭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야나 친구들도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 어렸을 때부터 탄탄한 부모 지원으로 공부해 온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에 한정된 가능성만 볼 수 있는 거라고, 너희들도 꿈을 갖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나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해 주신 지도 어느덧 10년 째가 됩니다. 몇 몇 마음에 심어주셨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꿈이 싹트기를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나 친구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야나 패밀리 후원 프로그램의 초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30달러를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아이를 후원자님 패밀리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쩔 수 없는 일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생활을 같이 할 수 없는 딸, 아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후원자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국에 있는 아들,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아이를 위한 여러가지 기도제목 중에 아이의 마음 속에 꿈을 심어주시기를 꼭 포함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나 메시지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신승규 YANA 이사장



Dreams and Dreams: From Our Hearts to the Hearts of Children

Sk Shin, Board Chair of YANA

For a long time, YANA was just a dream. It was a dream that was planted in the hearts of a few people who wanted to care for children who were not able to live with their parents. Children who had no choice but to live in facilities and face the harsh realities of life after leaving the facilities were ridden with heartache. In the hearts of these broken children, God had sprouted seeds of dreams, hopes and a plan. In 2008, a short-term mission team was called together to go to Dong Myung Children's Welfare Center and this was where the beginning of a dream started.

Annual short-term mission trips to Dong Myung continued thereafter. Flying Happiness started in the summer of 2011. Project Joy started in 2013. YSAP (YANA Study Abroad Program) started in 2014. And, the latest program to launch was YANA Family Sponsorships which started last year. All of these programs were developed so that the message of "you are not alone" could be shared with children who had no parents to lean on and to share our love with them.

I remember the conversation I had with pastor Joo when we were planning for the very first Flying Happiness. We shared how dreadful it was to call the home of these children orphanages or welfare centers. We wanted to invite them to the United States so that they could see and learn how precious life is. There are many people in this world who are warm and loving and we hoped the children could experience that. We wanted them to spend a couple of days with families and experience life together so that all of the negative connotations of "family" could be banished from their hearts. It was our vision to be able to show them how big the world was and how much opportunity existed even for them. After discussing our hopes and visions for Flying Happiness, we included a tour of Princeton University on the itinerary. However, the responses of the children after touring this university was not what I had expected. They were dissatisfied and complained that they saw no point in visiting a place that was too out of reach for them. After considering their negative feedback, we decided to take out visitations to Ivy League universities.

It has been 6 years since the first Flying Happiness. When I think back, I feel that we made a huge mistake. At that time, the students only had 3

years or less time in the facility. Perhaps that is why they thought tours at prestigious colleges were meaningless. They told us that their future was limited and the possibilities of reaching above and beyond were non-existent. Being out of character, I agreed. If I were able to go back 6 years to the first Flying Happiness, I would have these words for those students who told me their lives were limited. I would have repeated these words to all YANA students I would meet in the future.

"There are many things that hold us back from moving forward. However, the most powerful among them is our thoughts. Students from Dong Myung have the potential to study at Ivy League universities. It's not too late. You feel your opportunities are limited because you hold the thought that there is no way for you to compete with those who grew up in homes that nurtured education throughout their lives. You, also, can have a dream."

It has been about 10 years since God has connected us with Dong Myung. The dream that was planted in the hearts of few has now become a reality and the lives of the children are being transformed. It is now time to pray that dreams are sprouted in the hearts of more and more children. It's not an easy feat planting dreams in the hearts of the YANA children. It's not something that comes to fruition by mere words. Hence, I would like to turn your attention to YANA Family Sponsorships. Donating \$30 a month is important. However, I'd like to challenge our sponsors to consider your sponsored children as a part of your family. Consider them as members of your family that for some reason cannot live with you. Consider them as your daughter and son that God has brought into your lives. When you pray for your kids, pray for your kids in Korea. As part of your prayers for your children, include prayers that dreams will be planted into their hearts. Remain with them until those dreams become a reality and until they come to live faithful lives as children of God. Show them that they are never alone by relaying and imparting the message of YANA in your life.



‘야나’라는 이유

2년 전 한국에 갔더니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듣는 노래가 있어서 관심 있게 들어 보았습니다. 'Show Me the Money'라는 힙합 경연 대회에서 1등 한 가수의 노래였는데, 굉장한 인기가 있어서 그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비와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이름 참 잘 지었다 생각하고 그의 랩과 노래를 들어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랩을 얼마나 빨리 하던지, 못 알아 들었습니다. 난 아직도 십 대 아이들과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난 이젠 십 대의 노래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런데 얼핏 듣다 보니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가사를 찾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비와이라는 가수는 크리스천 가수인데, 본인이 만든 노래에 자신의 신앙고백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세상에 예수라는 이유가 되자'는 뜻을 품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노래로 고백한 가수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1등을 해서 길거리에 온통 이 친구 랩 노

래가 나왔습니다. 보통 힙합 노래들이 욕이 많이 들어가서 좀 듣기 거북했었는데, 드디어 제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힙합 노래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가 만든 노래 가운데 '왈츠'라는 노래가 특히 감동입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건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말어
이미 축복받은 내 인생을 살어
허나 내 행동이 신이 있단
증거가 되게끔
멈추지 않고 부딪힐 거야
끌리앗과 흥해 앞에서”

“내 행동이 신이 있다는 증거가 되게끔, 멈추지 않고 부딪힐 거야... 끌리앗과 흥해 앞에서.”라는 고백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게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라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나 미니스트리^{Yana Ministry}는 바로 이 답을 주기 위한 단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유가 될 때까지 끌리앗과 흥해 앞에서 부딪치려고 합니다. 특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와 헤어져서 살고 있는, 그래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계속 야나 사역을 통해 세상의 이유를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목회자분들도 말렸습니다. 물론 저를 아끼고 배려해서 말리셨을 것입니다. 너무 힘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사역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말고, 오직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일까, 아닐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인데,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따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나 미니스트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던 동명 아동복지 센터와의 만남은 2012년 Yana Ministry Inc. 의 탄생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와 함께 3명의 집사님으로 시작했던 이 사회가 지금은 11명의 이사진과 50여 명의 정기 후원자들이 생겼고, 저희 참빛 교회 교인들과 야나 코리아 멤버들까지 하면 250명이 넘는 야나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미국을 다녀간 학생들이 40여 명,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열 일곱분입니다. 또 여름에 동명 보육원으로 선교를 떠난 멤버들도 100명이 넘었고, 그곳에서 만나서 삶을 나눌 수 있게 된 동명 친구들도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그 중 5명의 친구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어 유학생으로 생활하고 있고, 보육원에 부족한 손길을 채우기 위해 2명의 정규직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야나 코리아 사무장을 야나에서 채용했으며 40명의 베이비박스 아이들을 저희 교회 가정들과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야나'라는 해야 하는 일을 통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이 저는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야나를 통해 또 어떤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그 결과가 기다려 집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예수라는 삶의 이유를 선물합시다. 그 이유가 되어줍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함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 봅시다. (야고보서 1:27). You are not alone,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줍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2018년 1월

황 주 목사, President

The Reason for YANA

Pastor Joo Whang

Two years ago I was in Korea and there was a song that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constantly listening to. It grabbed my attention and I listened to the song. It was a song by the winner of a competition on a show called “Show Me the Money”. He was so popular that I asked the students what the singer’s name was. His name was BewhY. I thought to myself, what a great name, and as I listened to his song, I was completely taken aback.

First, I had no idea what he was saying. He was rapping so fast I did not understand a word he said. I had always convinced myself that I was still young at heart and could relate to students in their teenage years. However, in that moment, I was made quite aware that songs of the generation after the millennials were way out of my league.

As I was listening to the song, I thought I had heard a Bible verse somewhere in that mix of words so I looked up the lyrics. I was pleasantly surprised that BewhY was a Christian singer who used his songs as a platform to profess his faith. As his name spells, he wanted to “Be Why”. He wanted to be the reason for this world to believe in Jesus and display this message in his life. For this reason he was able to boast of his faith in his songs. He won first place in the show and his music was literally playing everywhere. Most Hip Hop songs need to be censored but I was finally able to allow my kids to listen to rap without worrying about violence and crude language.

There is a song called “Waltz” which left a deep impression on me. The lyrics go like this:

“Even though I gain nothing, I walk
With faith I entrusted my life to God
If he wants me to go I will go; if not, I will stay
I live the blessed life I was already given
But I will continue to live as a witness
of the presence of God through my actions
I will not stop facing Goliath or the Red Sea”

“But I will continue to live as a witness of the presence of God through my actions. I will not stop facing Goliath or the Red Sea”. These lyrics were like an electric jolt. Like these lyrics, if we call ourselves Christians, we must tell the world that Christ is the reason we live. Our “actions and lives must be direct proof that God indeed exists”. We must be the reason for the world to believe. When the world asks “why” we must be ready to answer with “because of Jesus”.

YANA Ministry exists for this reason. Until our lives become the reason to convince the world about who Jesus is, we will face Goliath and the Red Sea. Our ministry exists for those who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not by choice, who end up living in poverty and hardship for no particular reason. We want to be the reason for those children to realize Jesus is the reason. I don’t want the grace and the love we’ve received from God to be in vain. We will continue to proclaim the reason through our ministry as faithful servants.

When I first started orphan ministry, there were many people around me that tried to stop me. Even pastors tried to stop me. I knew it was all out of concern for me. They told me it was too difficult. They told me orphan ministry had no purpose in Korean-American church ministry. I was told to find something else that would contribute to me as a pastor. However, in those moments, God spoke to my heart. Don’t ask whether this is something that will contribute to my pastoral ministry or not. Don’t ask whether this is something I can achieve with my own abilities. The only question to ask is whether this is something I must do. For those called by God, is it the right thing to care for those children who have been abandoned by their parent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as an obvious one. If you look at Scripture, the most frequent command is to care for social outcasts, the poor, orphans and widows. As a Christian, to hesitate because it is difficult or question



whether this would be beneficial to me or not, is not what we should be concerned with. This was the beginning of YANA Ministry.

We started partnering with Dong Myung Children’s Welfare Center in 2008, and in 2012 YANA Ministry, Inc. was formed. With the incorporation of YANA Ministry, we were able to develop new and exciting programs. What started with me and 3 board members has now grown to 11 board members, 50 donors, and 250 members in all. Through this ministry, 40 students and 17 teachers from Dong Myung have visited the United States. Over 100 people have participated in YANA summer missions. There are over 100 Dong Myung students that we have built relationships with. Of these students, there are 5 who are studying here on full scholarships. We have hired 2 full-time teachers at Dong Myung to fill the demand for more teachers and a manager at YANA Korea. There are 40 baby box children who are currently being sponsored

by families at church. This is our YANA Family!

All of these things have materialized in the past 5 years because our mission was clear: this is something we must do. God has shown us faithfully that for those who love him and are called by him to do his work, everything comes together for good. That is why I a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10 years. I have great expectations for what God will do through YANA Ministry. I know there will be difficulties and obstacles along the way, but in the end God will show us what a good Father he is. To those children and students who are living a difficult life, let’s be the reason they come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reason to live. Let’s strive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which is w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James 1:27). You are not alone. Let us live out this message that was demonstrated through the life of Jesus Christ. Amen.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is this: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James 1:27

BOARD MEMBERS

- ▶ **신순규** Board Chair
- ▶ **Isaac Kim** Vice President
- ▶ **심재일** Treasure
- ▶ **이 석** Project Joy
- ▶ **조도영** Fundraising
- ▶ **이종오** Flying Happiness
- ▶ **이영선/이성렬** YSAP
- ▶ **Jane Chung** Fundraising
- ▶ **김상열** Fundraising
- ▶ **김영선** YANA Korea Board Chair

STAFF

- ▶ **황 주** Executive Director
- ▶ **이용민** Human Resources
- ▶ **노윤주** Design and Communication
- ▶ **한근주** YSAP Director
- ▶ **김종환** YANA Coffee House
- ▶ **Field Operators** Sarah Yu, Michelle Lee, David Park, Andrew Lee
- ▶ **한지은** Volunteer Coordinator
- ▶ **박설미** YANA at Dongmyung
- ▶ **Grace Park** Publication
- ▶ **이석주** YANA Korea Coordinator
- ▶ **양혜원** Operation Director / Admin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는 유타주의 자이언트 캐년에서 첫번째 일주일의 시간을 야나이사님 가정에서 함께 보냈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층 더 밝아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으로 날아온 행복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 FLYING HAPPINESS

글 이종오

매년 2월이면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행복이 날아온다. 동명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전생님 두 분과 엄정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 네 명의 학생이 3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YANA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금문교, 구글 본사 방문,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는 유타주의 자이언트 캐년에서 첫번째 일주일의 시간을 야나이사님 가정과 함께 보내게 된다. 보고 싶은 아이들과의 행복한 만남이 서로에게 오랜 추억으로 남는 귀한 서부여행이 된다. 남은 열흘간의 일정은 세계의 중심인 뉴욕, 뉴저지에서 참빛교회 교인 가정집에 머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족과 같은 정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뉴욕의 명소들을 영어권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니며 좋은 추억들을 만들기도 한다. 야나이사님들과 만나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기도 한다. 3주간의 일정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플라잉해피니스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뉴욕의 명소들을 영어권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니며 좋은 추억들을 만들기도 한다.



“플라잉해피니스는 단순히 퍼주는 사역이 아니다.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이다. 대가 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품으로 표현 그 기쁨을 주는 내가 누리는 것이다.”

2016년부터는 '미니 플라잉 해피니스'라는 프로젝트가 신설되어 여름방학동안 참빛단기선 교팀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일주일간의 선교 활동 후 미국 동부 여행을 하게 된다. 지난 7년동안 플라잉 해피니스를 통해 29명의 학생과 17명의 선생님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플라잉해피니스는 단순히 퍼주는 사역이 아니다.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이다. 대가 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품으로 표현 그 기쁨을 주는 내가 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회를 통해 후원하는 모든 가정이 아이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며 또 함께 웃고 울 수 있으며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항상 손내밀고 도움을 줄수 있는 진정한가족,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후하게 베품으로 주는 것이 받는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이 일에 많은 분들이 의심없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YANA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글 박설미_사회 복지사



동명아동복지센터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전쟁고아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동명에는 태어난지 일년이 채 되지 않은 아기부터 대학생까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79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곳은 아이들에게 '집'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저희들의 마음을 잘 아실텐데요, 많은 아이들이 있다보니 1년 365일이 다이나믹하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골치아프고, 어찌 할지 몰라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저희아이들의 '미소' 하나면 모두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까요?

6년 전 저희앞에 고민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발생한 '베이비 박스' 때문입니다.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을 보낼 수 없게 된 법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갓 출생한 아이들을 거리에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 어느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를 만들었고, 그 곳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놓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바로 동명과 같은 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서 저희는 아이들을 제대로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24명의 영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들은 2박 3일 교대 근무형태를 이루고 있어 일하는 내내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병한 질환에 병원을 드나드는 일 또한 많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위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저희 아이들의 교육과 사회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가지 해결책으로 동명 내부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합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는 청개구리반'입니다. 한국에서는 늦어도 5세에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대기 순서에서 계속 밀려나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늦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 교육과 적응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명 내부에 어린이집을 개설, 현재는 청개구리반 4기를 운영중입니다.

사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중 30개가 넘는 시설이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명에서 내부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인해 베이비 박스 영아를 케어하는데 있어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시설에서 실제로 청개구리반을 모델삼아 내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 내 베이비 박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제2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9명의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어린이집으로 등원합니다. 집과 분리되어 선생님들로부터 신체활동, 예술놀이, 감각통합활동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이들은 청개구리반 졸업 후에 지역 내 어린이집에 무사히 적응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개구리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시설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 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교육 과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있어 지금 청개구리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미경, 박소영 선생님은 더 할 나위없이 좋은 분들입니다.

지미경 선생님은 청개구리반이 열악했던 1기부터 해주셨고, 저희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자, 유치부 선생님입니다. 박소영 선생님은 원래 '온유의 집'에서 아이들 양육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박소영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 생활하면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접목시키면서 케어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때 마침 YANA에서 청개구리반 교사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박소영 선생님이 포지션을 옮겨 청개구리반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중 30개가 넘는 시설이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명에서 내부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 인해 베이비 박스 영아를 케어하는데 있어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시설에서 실제로 청개구리반을 모델삼아 내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 내 베이비 박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제2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명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YANA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이 곳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편'인 YANA가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YANA Ministry의 사역들은 단순히 모든 것을 떠 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대가 없이 아이들에게 전해 주며,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받은 사랑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동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나누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소외된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실체가 되고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신실한 가족이 되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건강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GOING Summer Mission Trip

해마다 7월이면 YANA Ministry 의 든든한 동역자, 참빛 교회의 여름 단기선교에 동명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참 복음을 함께 들고 아이들은 해마다 사역지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품고 한국으로 향한다. 미국에서 참빛 식구들과 함께 선교하였던 친구들은 동명에서 있는 일주일의 VBS기간 동안 리더로 세워져 함께 하는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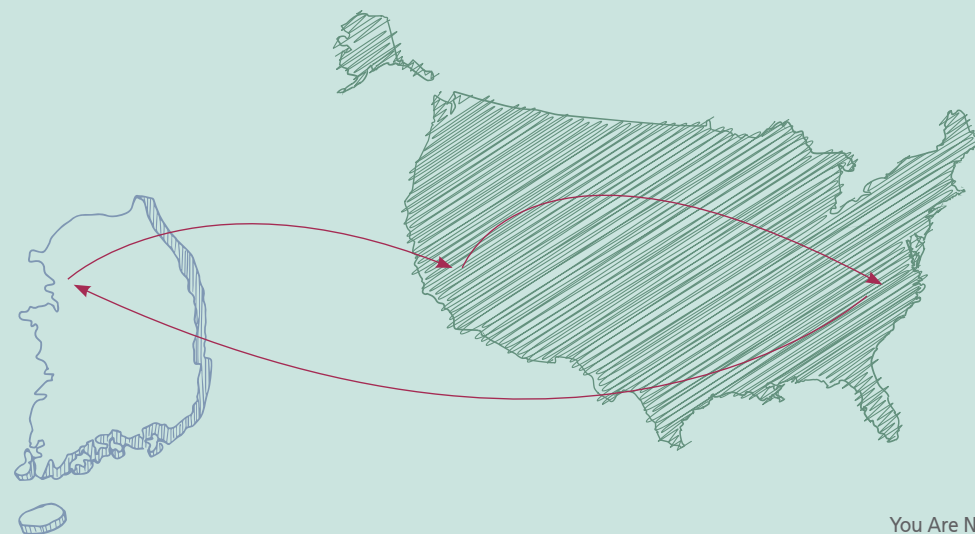
동명 복지센터에서 일주일간 사역 후, 도움이 필요한 미(未)자립 교회들로 사역의 장소를 옮긴다. 동명에서 리더로 세워졌던 아이들 모두가 함께 사역에 동참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개인의 삶을 감사히 여길 줄 알고, 또한 다른 모양으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동명의 아이들이 함께 함으로써 대가 없는 사랑의 결실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사역이다.

해마다 2월, 발렌타인 데이 즈음이 되면 YANA의 가족들은 받을 사랑으로 벅차 오른다. 한국에서 오는 동명의 아이들과 주어진 2주간의 시간 동안 서부에서 동부로의 여행을 통해 건문을 넓히고, 미국 전역에 있는 YANA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 동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 및 후원 가족은 아이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보람되고 또 아이들은 조건 없이 받는 귀한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또 격려 받는 시간이다. 미국 내 있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이루어 지는 인턴십 프로그램인 Project Joy는 복지시설을 퇴소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값진 사역이다. '기회의 땅' 미국에서 얻어지는 일자리를 통해 사회로 향해 뚝나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것이다.

COMING Flying Happiness/Project Joy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이다. 아이들을 직접 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품어 함께 살아가며 눈물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짧은 만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며 또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그 삶이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다.

CONNECTING YSAP/Become a Family Forever





The Three Reasons; *Why I am Passionate For This Organization*

글 Timothy Yi_Pastor

I have been to YANA Missions for the past 4 years and I am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Of the many mission trips I've been to as a student and pastor, this always stands out as the most memorable and life changing because no other trip has laid a burden on my heart to be the embodiment of "You Are Not Alone" to orphans and children in poverty. I hold YANA ministry dear to my heart because it is a vision that I want to see come to fruition. I want to see every child at Dongmyung orphanage experience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through YANA ministry. These are the three reasons why I am passionate for this organization.

It is REAL

Our team has the privilege of living in the same facility as the children and so we are essentially guests in their homes. We get a small glimpse of what life is like in the orphanage. Upon first glance, you notice that all their physical needs are met, but what they are in need of most is spiritual and emotional support. You begin to realize that there is more than beyond the external and that these children suffer from feelings of loneliness and abandonment. Their pain is real and the mission of YANA is to be incarnational, which means to be the presence of God to these children.

It is RELATIONAL

The ministries we execute at the orphanage are a weeklong Vacation Bible School, sports camp, and other educational programs. My main role is to direct my team members and the teenage students at the orphanage to work together and execute the various programs. However, these are simply tools to accomplish the true purpose, which is to build relationships with the students we work with. Our strategy is to be "people focused" rather than "program focused." We hope that through VBS, barriers would be broken down and that trust would be built up so that our team members can share the life-changing message of Jesus Christ. Our witness to these students are not the programs we run, but it is the connections we develop over time.

It is a REMINDER

The reality of this missions is that I am reminded how broken this world is and how much it is in need of God's grace and redemptive power. As a follower of Christ, I am reminded of James 1:27 which says,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is this: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I love YANA ministry because they take this verse seriously and are actively living it out. YANA ministry reminds me that I need to be the embodiment of God's presence to the children at Dongmyung Orphanage.



작은 행복의 시작, Mini Flying Happiness

글 김종환

참빛교회에서 작년, 도미니카로 선교 비전 여행을 다녀온 후, 올해 그 결실로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티 난민들을 위한 첫 단기선교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YANA를 통해 한국에서 온 선생님 한분과 학생 세명도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도미니카에 계신 신현재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번 사역은 교회 건물을 짓거나 우물을 파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연극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미국 팀과 한국 팀이 각각 연극 한편씩 준비하기로 하고, 네 명의 단기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한 행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분주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면서 한국 팀이 준비한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들이 모습이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먼곳까지 선교를 위해 찾아와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는 모습에 뭉클했습니다.

단기선교가 본격 시작되었고, 띄약별 아래 마을을 걸어 다니며, 돌밭에 무릎이 까지는 걸 참아가며 총 70회가 넘는 공연을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 발에 피가 난 아이도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만나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주님을 알리고, 우리가 믿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으로 축복을 하고, 준비한 간증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이티 분들 마음 가운데 짝 트고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들과 주님과 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도미니카로 출발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번 선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어보았습니다. '따름', '믿음', 그리고 '도움'이라고 각각 대답하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생각해보았더니, 아이들이 선교길에 오르며 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고 정말 사랑하시는 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세 명의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티 어린이들의 손을 꼭 잡고 다니고, 안아주며 함께 즐겁게 사진을 찍고, 틈 날 때마다 놀아주고, 사랑을 듬뿍 퍼주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남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이 아이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고백, 말도 통하지 않는 도미니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 일정이 다 끝나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낯선이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 그리고 세명 모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는 고백,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그 마음을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미니카 선교활동을 다녀와서

YANA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퍼 주는 사역이 아닌,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그들의 삶 밖으로 보여지고, 전달되는 일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한다. 2017년 무더웠던 7월 여름, 한국에서 미국으로 '행복'이란 이름으로 날아왔던 학생들 또한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경험을 하고 왔다. 뉴저지 참빛교회의 여름 단기 선교팀과 함께 도미니카를 방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었다. 그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다.



정신웅_중앙대학교 1학년

도미니카 선교 이야기를 처음 듣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싶다'고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선교에 함께 간다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내 생각 범위 안에서만 하고 오리라 계획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도미니카에 도착해, 그 곳의 사람들을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지쳐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이었던 도미니카 현지 분들은 아주 오래 전 아이티에서 노예로 잡혀온 분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아직도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언어인 크레올어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극으로 보여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대가 없이 죽으셨고 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적힌 종이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하나 읽어주고 한번 더 알아주고 손잡아 주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선물로 개인 사진을 찍고 또 액자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도미니카 선교 일정 중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한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미니카 시내에서 돌아오는 중 제 눈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아이티 사람으로 보이는 그분께 저는 그냥 뛰어 다가갔고 마침 호주머니에 있던 4문장의 전도 종이 한 장을 크레올어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맑은 눈으로 쳐다보더니 먼저 안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인사 후 돌아가는 길에 내가 한국에서 이곳 도미니카 땅에 와서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피어날지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분들의 일상과 환경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무너지고 척박한 환경에 아쉬움과 또 세상에 불공평함에 분노를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선교를 오기전 정해진 틀 안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잠부터 바꾸어 더 준비하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과 준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선교사님과 다음을 기약하며 또 저와도 약속하며 선교활동을 마쳤습니다.

백한나_안양 상업고등학교 2학년

저는 이번 도미니카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날부터 이곳저곳 다니며 많이 쉬지 못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많은 아이들이 선교팀을 따라다니며 도와주고 따르는 모습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수많은 연극이 끝나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아침에 마주친 모습과 다르게 자기가 가진 가장 이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짧게 댄스지만 우리를 기억해 주어 너무 고맙고 또 그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과는 말도 안 통하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끼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내게 힘이 되어주는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는 제게 아침마다 식사 준비를 해 주신 선교사님, 사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배움을 받아왔던 아이들은 SMT를 통해 사역자가 되어 나눔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한층 더 내면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된다.



둘째 날은 가파른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갔습니다. 오르는 동안 숲이 턱턱 막혀 가기를 포기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함께 선교에 참여했던 훈 선생님과 이용민 목사님의 도움으로 겨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선교사님이 '복종'에 대해 나누시면서 '산에 오르면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라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올라오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신 분?"하고 물으시고는 아무도 없자 한 명 한 명에 무슨 말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다들 격려의 말들이 오갔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에 부끄러웠습니다.

힘들게 겨우 오른 산에서 마주친 바다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힘이 드는 일을 버티고 순종하여 나오는 결과로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짜증 나지 않고 잘들 수 있을 만큼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도미니카 아침이 기억됩니다. 예쁜 하늘과 자연, 옥상에 오르면 보이는 소떼와 수많은 나무 또 닭울음 소리,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보았던 그 풍경들이 지금 이 순간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도미니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명과 야나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미니카 어린이 친구들과 우디 목사님,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기준_당곡 중학교 3학년

첫 선교 여행이라 떨리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내가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이번 여행은 정말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선교는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 교회들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선교를 통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대화를 통해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어떻게 아이티 분들이 그곳에 계시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귀담아들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밖에 교회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나누었는데,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른 만큼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다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여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 갈팡질팡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미니카에서 올라갔던 산과 바다가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광경에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미니카의 바다에서 했던 스쿠버 다이빙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물속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도미니카 선교는 너무나 즐거웠고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YSAP: YANA Study Abroad Program

아름다운 그리스도 가정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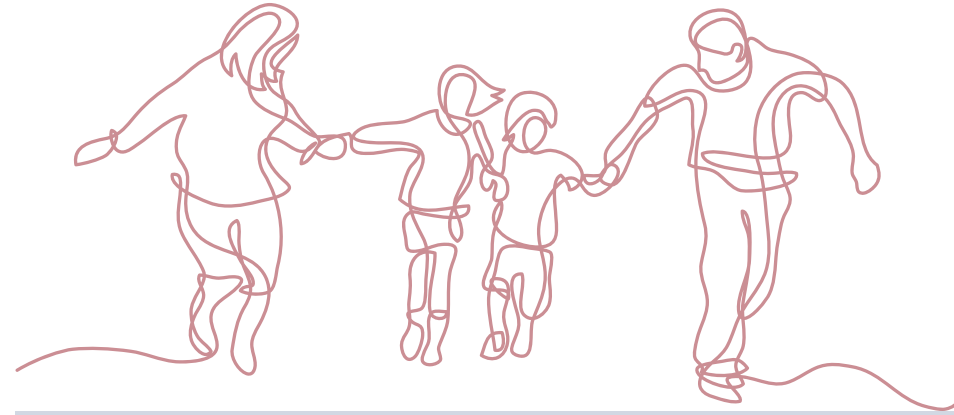
글 신순균_YANA BOARD CHAIR



“누나 손 놓치면 안 돼, 데이빗 빨리 빨리!”

길을 잃었다. 그것도 맨해튼 번두리에서 말이다. 어둠이 내려앉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술에 취한 사람들, 너무도 빨리 걸어가 는 사람들, 그리고 약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홈리스들 까지... 차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이 도통 나지 않는다. 혹시 차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조바심에 이 골목 저 골목을 빠른 걸음으로 뒤지고 있다. 맨해튼에 처음 나온 예진이도 무서울 텐데 걸음이 늦어 뒤쳐지는 동생, 데이빗을 엄마 대신 알뜰히도 챙긴 다. 예진이가 미국 온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던 해프닝이다.

쫓겨온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를 기다려주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이의 말을 들어주며 같이 울게 될 때 비로소 하나 님의 사랑이 현실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통해 예진이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도로를 달리는 차 안,

“바바바 바나나, 바바바 바나~~~아나,~~~포테이토 나~~~아나.”

두 아이가 연신 노래를 불러댄다. 목소리를 고래 고래... 그러기를 두 시간째, 소음을 끄적어도 싫어하는 나는 그래도 짜증이 안 난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그 어떤 오케스트라의 음악보다 듣기 좋다.

우리가정이 예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9년이란 불임 기간을 희망과 실망의 거듭으로 지낸 저희 부부는 한동안 입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입양 서류를 작성하던 그 시기에 기적 처럼 데이빗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만 37살에 낳은 첫아이를 기쁨으로, 설렘으로 몇 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 Summer mission으로 하던 고아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잊고 있던 입양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저희도 이 사역에 참가하게 되었고 우리가 한동안 원했던 입양을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막연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Flying Happiness를 통해 매년 동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 관계를 쌓기 시작 하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과 더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그리스도 가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그들의 미래에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YSAP입니다.

YSAP은 ‘YANA Study Abroad Program’의 약자로, YANA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주며 더 나아가 크리스천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살면서 가족의 사랑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의 유대 관계를 통해 신앙과 인격이 같이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입양을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합법적인 입양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YSAP은 ‘YSAP Youth’와 ‘YSAP College’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진이는 YSAP Youth의 첫 학생으로 2014년 4월 18일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후, 2015년과 2016년 9월에 두 명의 대학생이 유학을 오게 되었고, 현재 Bergen County Community College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7학년 학생 한 명을 더 환영하면서 YSAP Youth와 YSAP College 프로그램은 각각 두 명의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유학을 오기 위해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한 명의 청소년과 한 명의 대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SAP을 통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해 주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YSAP은 'YANA Study Abroad Program'의 약자로, YANA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주며 더 나아가 크리스천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살면서 가족의 사랑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미래를 위해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으로 꿈을 선물해 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YSAP Scholarship 문의 및 신청

✉ yanaministryorg@gmail.com

☎ 201-602-6311

YSAP Youth는 만 12~14세 나이의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단순한 홈 스테이 학생으로 보기
보다는 '나'의 자녀와 같은 아이로 받아줄 수 있는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어도 아이
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함께 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이 더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사이에서 전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YSAP College는 이미 성인이 된 학생들의 유학을 후원하기 때문에, 적응기간 1년 정도만 홈
스테이를 합니다. 홈스테이를 마친 후에는 어느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살게 됩
니다.

YANA에서는 아이들의 전 학비, 교통비를 비롯한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하며 좀 더 많
은 분들이 YSAP 가정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YSAP 가정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YSAP Youth 사역은 입양된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친 자녀와 다를
바 없이, 아들과 딸 또 나의 자녀들의 형제나 자매로 아이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 시작
됩니다. 아이의 정신적,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으로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본인
들의 자녀를 키우듯이 교육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혼도 내면서
살을 나누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겠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가
정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아이에게 그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
니다.

YSAP College는 일 년이라는 기간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학생이 거주할 방과 식사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하숙집 운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삼촌처럼, 혹은
이모처럼 관계를 맺고 유학생생활을 잘 시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YSAP Youth 가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책임감과 부담 때문에 용
기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YSAP College 가정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YANA 사무국이나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ANA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의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고, 정신적 학대나 폭행 등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
다. 보육원 퇴소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조건과 차별
된 대우를 만나게 됩니다. 소위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아이들을 도와
주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외 입양이 아
주 어렵게 되고, 국내 입양조차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좁혀 놓고 있으니까요.”



YANA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의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고, 정
신적 학대나 폭행 등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보육원 퇴소 후 그들을 기다리
고 있는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조건과 차별된 대우를 만나게 됩니다. 소위 지도자들이 만들
어 놓은 법은 아이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외
입양이 아주 어렵게 되고, 국내 입양조차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좁혀 놓고 있으니까요.

옛날 고아원에서 살던 아이들처럼 배고프거나, 춥거나, 헐벗지는 않지만, 마음의 상처와 편
견 등이 쌓아놓은 벽은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아이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 벽
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 밖에 없
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누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 아이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먼저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를 기다려주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이의 말을 들어주며 같이 울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통해 예진이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명 아동 복지센터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YANA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Family Sponsorship**을 소개 합니다.

한국은 복지센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고등학교 졸업 후), 머물렀던 센터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퇴소 후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약 300 만 원 정도가 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여 금방 소진하거나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요즘의 한국의 물가로 본다면 비싼 월세를 채우지도 못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이 액수는 한 학기 대학 등록금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기에, 이 아이들은 여느 아이들과는 다르게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꾸지도, 가지기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마다의 삶을 위해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마음도 없고, 그저 현실에 타협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동명 아동복지 센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퇴소 후 센터의 보호 없이 살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 전문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대개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또 대학이라는 곳은 당연히 가지 못하는 곳'이라 단정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또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YANA Ministry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Family Sponsorship'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후원 아동 혹은 학생을 연결해 드립니다. 후원이 이어진 아이가 자라 보육원을 퇴소할 때까지 매달 꾸준히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월 30달러의 후원금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동명 아동복지 센터를 퇴소할 때까지 모아지고 퇴소 후 대학 진학 시 바로 지원 됩니다. YANA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아이들은 퇴소 후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또 자신만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님들이 보내 주신 후원금은 무엇보다도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준비하는데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YANA는 후원자 분들이 보내주시는 30달러 전부를 그대로 후원아이에게 전달합니다.)


아이들이 좀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억압받지 않으며 또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나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꿈의 도움'이 되어 주세요.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쁨'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육 복지시설인 동명 아동 복지센터의 아이들을 매달 정기 후원금으로 후원하는 후원 양육 시스템. 후원금은 매달, 후원 아동이 퇴소할 때까지 모아져 대학 진학을 하거나 자립 시 전액 전달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해 주세요!

후원 방법 매달 30달러씩 후원

후원 신청 

 yanaministryorg@gmail.com

 (201) 602-6311



당신의 책, 자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전문가 집단 **스토리 버드**가
사소한 일상,
소소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리 전문가 집단 **스토리 버드**는
사소한 일상,
소소한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책자 출판

종 교 간증집 | 목상집 | 설교집 | 영성일기 | 교회 사사
가 정 자서전 | 육아일기 | 신혼일기 | 웨딩 다이어리
교 육 포트폴리오 | 그림책 | 패밀리 매거진
취 미 요리 | 여행 | 크래프트 | 인테리어
예 술 사진집 | 미술 작품집 | 디자인북
문 학 시 | 수필 | 소설 | 기행문 | 산문집
간행물 뉴스레터 | 사보 | 협회지 | Year Book | 매거진

기획 출판

문학, 인문학, 과학, 사회학, 실용, 커리어 등 모든 전문 분야에서
책으로 완성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저자로 초빙합니다.
스토리 허브에서 소중한 콘텐츠를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간단한 기획안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빛나는
사람들



뉴욕 현지 콘텐츠기획 | 독립출판사
storybirdusa@gmail.com
Kakao talk ID: soocrystal

www.truelight.org

사회적 기업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yaña

COFFEE HOUSE

